다문화가족 문화예술 맘껏 뽐냈다

전남도 비대면 경연대회 시상
출신국 전통춤·퓨전난타 등 경쟁
함평군 으랏차차팀 최우수상 수상

전남도내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해 출신 국가의 전통춤이나 음악공연 등을 겨루는 다문화가족 문화예술 경연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으로 열렸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다문화가족 문화예술 경연대회는 도내 다문화가족들의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문화·편의시설을 꾸준히 설치해 이들이 지역공동체에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사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남도는 9일 "지난 5일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다문화가족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다문화가족 문화예술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가 주관하는 다문화가족 문화예술 경연대회는 도내 다문화가족의 화합과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다. 매년 30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모여 축제의 장으로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라 영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난 10월 비대면 심사를 통해 수상작품을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영상심사로 진행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공연부문 수상 2팀이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경연에는 공연부문 15개 팀, 사진부문 22개 팀이 출품했다. 출신 국가를 대표하는 전통춤, 우리 고유의 전통악기인 해금과 가야금 연주, 퓨전 난타 등 다양한 공연작품이 경쟁을 벌였다.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초청해 심사한 결과, 최우수상은 함평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으랏차차 나눔봉사단팀이 차지했다. 우수상 2팀은 장흥군 아잘레아 댄스팀, 무안군 양파전통춤 무용단팀이, 장려상 3팀은 곡성군 엄마와 함께 춤을팀, 강진군 가우도팀, 완도군 건강의섬 완도팀이 수상했다.

추가 행사로 열린 사진전에서는 '슬기로운 코로나19 극복생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 프로그램 소개' 등 2가지 주제로 도내 22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9점을 출품했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은 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두 다 꽃이야'가 수상했으며, 우수 및 장려상을 받은 6개 작품을 포함해 22개 센터를 대표하는 작품 1점씩 총 22점을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 로비에 전시했다.

김종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상황으로 영상심사를 하게 돼 아쉽다"며 "내년에는 일상으로 돌아가 갈고 닦은 다문화가족의 예술 기량을 현장에서 마음껏 뽐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업박물관 '관광형 주말 농부장터' 대성황

10월 9일부터 3차례 열어
일상회복 대규모 행사 모범

전남도농업박물관이 올해 처음 시도한 '관광형 주말 농부장터'〈사진〉가 대성황을 이뤘다.

특히 코로나팬데믹 상황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대규모 행사를 안정적으로 치러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농업박물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농업인의 판로를 확보하고, 침체한 영산호관광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10월 9일과 23일, 11월 6일, 세 차례 주말 농부장터를 열었다.

박물관 진입로에 농산물 판매부스와 어린이 무료 체험 부스를 설치해 농업인이 생산한 유기농 쌀, 고구마, 무화과 버섯, 절임배추, 땅콩, 국화와 장류 등 우수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참여자는 박물관 관람을 즐기면서 싼 값에 농산물을 사가는 관광형 장터로 운영했다.

농업박물관은 또 어른과 함께 장을 보러 온 아이들을 위해 가오리연 만들기, 모빌, 무드등 만들기 등 각종 체험행사도 함께했다. 또 박물관 측이 마련한 사은품 600여 개는 세차례 모두 오전 중에 동이 나고 18명씩으로 인원을 제한해 오전과 오후 10회차에 걸쳐 실시한 무료체험은 개장 전부터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개장 1시간도 안돼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농부장터가 성황을 이루면서 박물관 관람객도 크게 늘어 하루동안 평균 1000여명을 기록했다. 체험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는 박물관 뜰에서 직접 만든 가오리연 등을 날리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임영호 전남도농업박물관장은 "박물관이 지역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고심하다 주말 농부장터를 열게 됐다"며 "처음 하는 행사라 걱정도 많았지만 예상외로 평가가 좋아 내년에는 봄과 가을에 더욱 활성화해 지역 명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대학벤처동아리 경진대회
순천대 SCNU팀 대상

전남도가 미래 성공 창업가 등용문인 '제22회 대학벤처동아리 경진대회'를 열어 순천대 SCNU팀 등 9개 우수 동아리를 발굴했다. 〈사진〉

전남도가 주최하고 순천대 창업지원단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도내 5개 대학 15개 동아리가 각 학교의 명예를 걸고 참여했다. 이들은 창업아이템과 자체 개발한 기술을 발표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는 창의성, 기술성, 실현 가능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해, 대상 1팀, 우수상·장려상 각 4팀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총 9개 동아리를 최종 선정됐다. 대상은 순천대 SCNU팀이 차지했다. 이 동아리는 위험요소가 많은 건설·토목 현장의 작업자가 착용하는 안전모에 모바일 앱과 연계한 안전시스템 기술을 선보였다. 우수상은 순천대 무한콤부탬, Day of blue팀, GLUEGLOO팀과 목포대 Toch팀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순천대 퍼퍼먼트팀, Fun개장터팀과 전남도립대 ICTC팀, 동신대 아이비전팀이 선정됐다. 총 상금은 800만 원으로, 대상 200만 원, 우수상 각 100만 원, 장려상 각 50만 원을 수여했다.

전남도, 통계청 통계조사 유공포상 대통령상

전남도가 통계청 주관 '2021년도 대규모 통계조사' 유공포상 수여식에서 통계조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 및 개인 분야 동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포상은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올해 '경제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를 성공리에 추진한 공이 큰 지자체와 공무원을 선정, 우수사례를 대외로 널리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

전남도는 고령인구와 농림어업종사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통계조사를 추진하기가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지역에 알맞은 조사계획 수립과 적극적 홍보로 도민 참여를 유도해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도민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조사 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완벽한 조사시스템도 갖췄다. 이 같은 성과를 높게 평가받아 가장 우수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전남도 스마트정보정보담당관실에서 전남의 통계를 책임지고 있는 임수열 주무관도 대통령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통계조사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조사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통계업무를 추진했다. 평소 전남 지역내총생산(GRDP), 사회조사, 통계연보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적극 제공해 통계의 활용성을 높였고, 통계청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고를 인정받았다.

올해 시상에서 전남도가 기관 및 개인 분야를 동시에 석권함에 따라 통계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임을 입증하게 됐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조사환경 속에서도 도가 앞장서 열정적으로 통계업무를 추진했고, 무엇보다 조사원의 방문에도 친절히 응해준 우수한 도민의 협조로 큰 상을 수상했다"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에서 추진할 다양한 통계조사에 도민 모두가 지금처럼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재시동

취약지 맞춤형 복지·의료 서비스

전남도가 최근 의료·복지 취약지역 주민의 공공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에 들어갔다. 행복버스는 도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 도입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기본서비스의 경우 혈당·치매검사 등 기초검진과 가스점검·법률상담 등 가사지원 ▲맞춤서비스는 돌봄사업·가사도우미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연계서비스는 안과·내과·치과 등 건강상 중·고위험군의 전문 의료기관 연계 지원 등이다.

여기에 의료·복지·생활민원 등 분야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 역할도 한다. 행복버스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시선별 검사소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른 외국인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내국인 6천147, 외국인 2천357 등 16개 시군 8천504명에게 코로나19 유전자 검출검사(PCR 검사)를 해 양성자 3명을 선별했다. 지난 9월 6~7일에는 중학교 집단감염으로 방역에 빨간불이 켜진 광양에서 747명의 검사를 진행하는 등 집단감염 차단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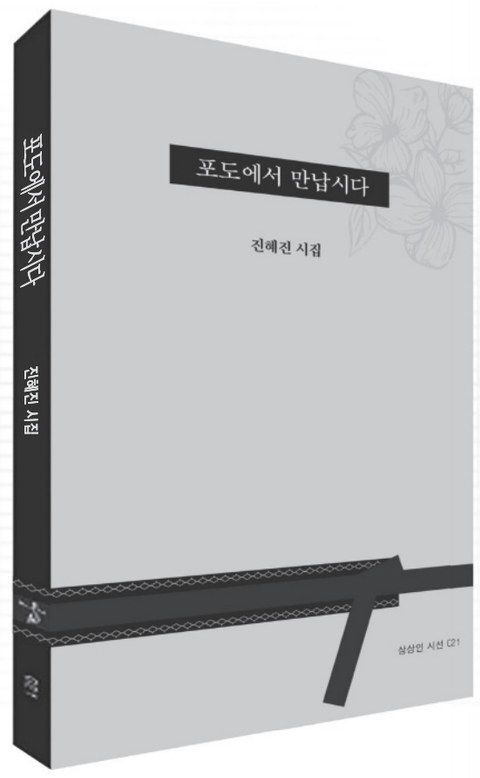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이동이 불편한 도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산림청 2021년 숲가꾸기 사업
전국 12곳 심사…전남도 우수상

산림청의 '2021년 숲가꾸기 우수사업장 평가'에서 전남도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숲가꾸기 우수사업장' 평가는 산림청이 숲가꾸기 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선정 대상은 2020년 하반기 이후 실행한 경제림 가꾸기·공익림 가꾸기·산불예방숲 가꾸기 등 실행지로, 설계와 감리 모두 용역으로 시행한 큰나무 가꾸기 사업 완료지다. 전국 12개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전문가의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5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우수사업장은 ▲최우수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우수 전남도 장성군, 충청남도 서산시 ▲장려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넴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